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조국(曹國) 사태가 주는 교훈

조국(曹國)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블랙홀, 광풍(狂風)은 한 바탕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무시못할 여진(餘震)과 잔불은 방심을 불허한다.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變數)나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 또 다시 태풍이나 해일(海溢)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일(토) 오후에도 광화문광장에서는 '조국 감옥'과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같은 시간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광장 집회는 반정부 집회이고,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는 친정부 집회이다.

국민들도 두 편으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친한 사람을 만났다고 함부로 자기주장을 말했다가는 말다툼하기 딱 좋은 주제가 조국 관련 이야기이다. 심지어 가족간에도 조심해야 한다. 조국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나 반대나 까지 합해져서 국민들 심정은 복잡하다. 중도층도 심사(心思)가 복잡해져서 무당층(無黨層)으로 넘어가서 많이 늘어났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제

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걸었던 기대와 지지가 대통령 5년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취임 초반 90%에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6%까지 추락했다. 그렇다고 적폐(積弊) 세력으로 지목하는 자유한국당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경 보수도 괴롭고 강경 진보도 괴롭다. 합리적인 보수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합리적인 진보도 운신(運身)의 폭이 넓지 않다. 이편저편이 아닌 온건한 중도(中道)도 가만히 있자니 기회주의자 같고, 목소리를 내자니 배타적인 정쟁과 색깔 논쟁에 휘말릴 것이 뻔하게 보여서 처신이 응색해 질 수밖에 없다.

나는 3년 전, 23차 촛불집회에 모두 참석하고 1주년 기념 촛불집회까지 참석했다. 보수진영이 주최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와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석해서 민심을 현장에서 보고 들었다. 한쪽만 보고 알아서는 균형 잡힌 안목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완전히 균형 잡힌 판단이 아닐지도 내 나름대로 조국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정리를 하고

자 한다.

첫째, 청와대와 집권당, 특히 대통령의 현실 판단과 결단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후, 언론과 야당,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교수, 학생 등 진정한 여론을 경청하고 수용해서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종 만들지 않은 내란과 같은 큰 혼란과 국론 분열, 갈등과 대립, 적대감과 국력 낭비는 생기지 안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정확한 민심 파악과 현명한 국정 운영의 중요성이 조국 사태의 핵심 키워드이다.

둘째,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온갖 특혜와 빙자, 불법을 저지를 사람을 혐의만 있다고 장관을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감을 느꼈다. 불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 년이 걸린다. 특히 학업도 어렵고 취직도 어려워서 졸업하면 청년 백수(실업자)가 될 불안감과 극심한 경쟁 속에 있는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를 흡뻑 맛보았다.

부모의 인맥과 재력, 부모 친선을 사용하여 듣도 보도 못한 인턴 증명서를 기짜로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보통 학생들은 죽어라고 공부해도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장학금을 성적 불량으로 진급이 유예(猶豫)되고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3년 연속 받는 것을 보고 청춘들은 우리 사회와 정치, 인간의 주한 민낯과 뒷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했다.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생들이 이 교내 촛불집회를 넘어서 16개 대학 학생들이 연합해서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은 고난과 시련의 5천년 민족사를 잘 견디고 극복하여 오늘의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3년 전 촛불시민 혁명으로 국정농단을 추궁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지지하고 탄생시켰던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불의한 조국 장관 임명에 저항하여 사퇴시키고, 지지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다.

더구나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문 대통령에 실망하고, 특히 평소 평등과 공정을 그토록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의 후안무치한 온갖 기묘한 위선(偽善)과 궤변(詭辯)에 국민들은 기가 막혀 버렸다. 조국 사태는 상식과 공정의 소중함, 위선과 궤변의 주한 민낯을 생생하게 가르쳐준 소중한 역사적인 반면교사(反面教師)였다.

社說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충격적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처벌강도도 강화됐지만, 아직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이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동물의 생명권을 대하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로 동물 학대 같은 잔인한 반려동물 입양을 규제할 필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2017년 한 차례 강화돼 그때까지 수위가 낮지는 않지만 선고되는 형량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판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과거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마치 무생물 물건처럼 동물을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이 태어나 판매·분양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함부로 사거나 버릴 수 없게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반려동물을 구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로 현재 실시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입양을 규제할 필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기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가상예보 131
- ▲ 범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안개구간 운행시 주의사항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하여 이른 새벽 시간대에는 자주 안개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엄청난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

인 때는 감속해야 한다.

안개가 발생한 도로에서의 운행은 빗길이나 눈길만큼 위험한 데도 안개길의 위험성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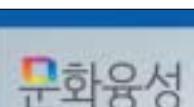
안개길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의 위험상황을 제대

로 피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속운행을 하여야하며 또한 짙은 안개 발생 지역에서는 시야를 통해 들어오는 교통정보가 현저하게 감소함으로 창문을 열고 운행하면서 청각을 통해 교통상황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급적 안개구간을 운행할 때에는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어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개지역이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익혀두는 것도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운행차량의 전조등과 미등, 차폭 등을 반드시 켜야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안개길 운행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내 안전과 나아가 가족의 안전도 지키길 바란다.

진민호 / 획순119인천센터 소방장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